



Oblivoir를 이용한 문서 작성

Document Preparation with Oblivoir

이기황 Kihwang Lee*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정보학과정 kihwang.lee@yonsei.ac.kr

KEYWORDS Oblivoir, Memoir, Memhangul-ucs, KoT_EX, L_AT_EX

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s Oblivoir, an easy-to-use, feature-rich general purpose L_AT_EX document class written by Kangsoo Kim. Oblivoir is equipped with useful features that novices often desperately need yet hard to find in standard document classes. Oblivoir class attracts seasoned L_AT_EX users as well since it is based on the powerful document class Memoir and Memhangul-ucs package which implements Korean typography on it. These inter-related document class and packages are distributed together as components of KoT_EX, a Korean T_EX system. Oblivoir can be used for preparing both simple and complex documents offering great flexibility to users.

1 머리말

“라텍(L_AT_EX)은 문서 작성자로 하여금 문서의 모양새에는 신경을 쓸 필요 없이 문서의 논리적인 구조와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우리는 이 말을 라텍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듣고 있다. 심각한 라텍 사용자는 이 말을 마치 신앙 신조처럼 받아들이고, 초보 사용자들도 이 말의 의미를 점차로 깨닫게 된다.¹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아무리 글의 내용에만 집중하려고 해도 문서의 용지 크기와 여백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행간은 어떻게 조정하는지 등의 문제가 사용자의 발목을 놓아주지 않는 한, 문서의 내용에만 집중하려는 의도는 흐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러한 문제들은 다른 문서 작성 도구에서는 대체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에 모처럼 라텍을 배워 보려는 입문자들에게 많은 좌절을 안겨 준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용자 설정의 기본값을 미리 제공하여 표준적인 한글 문서 작성 서식을 제공하려는 목적”[4]으로 작성된 라텍 클래스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Oblivoir이다. Oblivoir는 라텍 입문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줄 뿐만 아니라 Oblivoir 와 깊은 연관이 있는 다른 클래스와 패키지들로의 진출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Memhangul-ucs와 Oblivoir를 만들고 유지하는 김강수님, 그리고 이 글의 초고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 제안을 해 주신 조인성님과 조진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1. 사실 라텍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또 고급 라텍 사용자가 되려면 이 철학에 동의해야 하며,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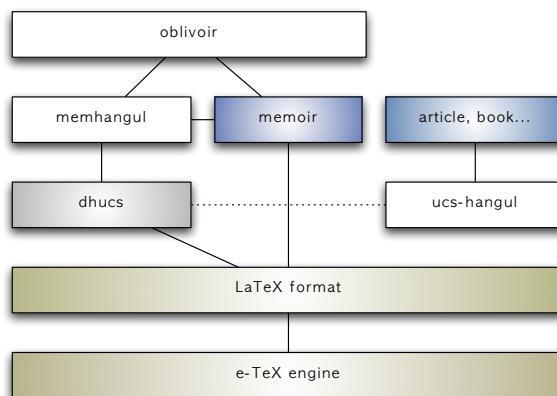


그림 1. Oblivoir, Memoir, Memhangul(-ucs), dhucs($\text{\texttt{KaTeX}}$ /utf)의 상호 의존 관계 [4]

이 글에서는 몇몇 KTUG FAQ 위키 페이지 [6, 7, 8]와 온라인 문서 [2, 5], $\text{\texttt{KaTeX}}$ 사용 설명서 [4] 등 이곳 저곳에 흩어져 소개된 Oblivoir를 이용한 문서 작성 방법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리하고자 한다.² 소개하는 기능 가운데에는 Oblivoir의 고유 기능이 아니라 Oblivoir의 근간이 된 다른 클래스 및 패키지의 기능도 있으나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다.³

2 Oblivoir란 무엇인가?

“Oblivoir”라는 명칭은 ‘망각’, ‘잊기 쉬움’이라는 뜻을 가진 ‘*obliviscence*’라는 단어와 ‘논문’, ‘책’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이다 [6]. 이 신조어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겠지만, 글쓴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Memoir 클래스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게 해 준다’라고 풀이하고자 한다. 즉, 이 명칭은 Oblivoir의 밑바탕에는 대규모의 복잡한 출판물 조판에 편리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Memoir 클래스와, 그 위에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구현한 Memhangul-ucs 패키지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보는 것이다. Oblivoir와 Memoir 클래스, 그리고 Memhangul-ucs 등과의 관계는 그림 1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Oblivoir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 및 패키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은 Oblivoir 클래스에 대하여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핵심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Oblivoir는 article, book 등의 표준 라텍 문서 클래스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2. 사용자가 KTUG Collection 2007 등 $\text{\texttt{KaTeX}}$ 이 포함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텍 환경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이 환경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필요한 경우 해당 클래스 및 패키지 관련 참고 문헌을 제시한다.

② *Oblivoir*는 *Memoir* 클래스와 *Memhangul-ucs* 스타일에 의존한다.

③ *Memhangul-ucs* 스타일은 *Memoir*와 *dhucs(koTeX/utf)*에 의존한다.

①이 의미하는 바는 *Oblivoir*가 논문, 책, 편지 등 다양한 문서의 작성에 이용할 수 있는 범용 문서 클래스라는 것이다. 즉, *Oblivoir* 클래스는 마치 *article*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가볍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개의 장으로 구성된, 수백 쪽에 이르는 대규모의 복잡한 출판물을 작성하는 데에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다.

②에 의하면 *Oblivoir*에서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이외에 *Memhangul-ucs*와 *Memoir*에서 제공하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Oblivoir*가 미리 제공하는 사용자 설정의 기본값을 바꿀 때에는 *Memoir*의 강력한 사용자 설정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사용자가 각 기능이 어디에서 제공되는지 굳이 알 필요는 없다. 단순히 *Oblivoir* 클래스의 기능이라고 생각해도 충분하다. 또한 *Oblivoir*와 *Memoir*가 직접 연결될 수 있음은 *Oblivoir*가 원칙상 한글 문서 작성을 전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글이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적용되지 않는 문서의 작성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③은 *Memhangul-ucs*는 *koTeX/utf*에 의존하므로 *Oblivoir*는 한글 관련 기능을 *koTeX/utf*에서 제공하는 것을 이용하며, 따라서 utf-8로 인코딩된 한글 문서만을 조판할 수 있다는 매우 당연한 사실을 나타낸다.

다소 복잡해진 설명을 요약하면, *Oblivoir*는 논문, 책, 편지, 단행본 등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문서 작성에 이용할 수 있는 범용 문서 클래스로서 대부분의 사용자 설정 기본값을 미리 제공하며, 이러한 기본 설정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함을 제공하는 utf-8 한글 문서의 작성에 특화된 클래스이다. 따라서 *Oblivoir*는 초보 사용자에게뿐만 아니라 숙련된 사용자에게도 매우 유용하고 편리하다.

3 첫 번째 *Oblivoir* 문서

*Oblivoir*를 이용하여 작성한 가장 단순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

```

1 \documentclass{oblivoir}
2 \begin{document}
3 Oblivoir 문서를 실험합니다.
4 \end{document}
```

위 소스 문서로부터 pdf \LaTeX 을 이용해 곧바로 PDF 문서를 생성하거나, \LaTeX 으로 얻은 DVI 문서를 DVIPDFM x 를 이용해 PDF 문서로 바꿀 수 있다.⁴ PDF 문서가 생성될

4. 이 글에서는 라텍 문서의 최종 산물을 PDF로 간주한다. PDF 문서를 생성하는 방법은 사용자의 텍 환경과 사용하는 편집기에 따라 다르다. 텍 문서 편집에 특화된 편집기에서는 단추를 누르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KTUG Collection 2007 사용자라면 KCMenue를 이용할 수 있다.

때에 사용되는 한글 글꼴은 `koTEX` 기본 글꼴인 “은글꼴 type 1”이 사용된다.⁵ 또한 생성된 PDF 문서로부터 한글 문자열을 추출할 수 있다.⁶

그렇다면 PDF 문서를 생성하기 위해 $LAT_{\mathcal{E}}X \rightarrow DVIPS \rightarrow PS2PDF$ 의 경로를 이용하여 어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때에는 다음과 같이 `dvips`라는 클래스 선택 사항을 추가로 지정하면 된다.

```
1 \documentclass[dvips]{oblivoir}
```

4 용지 및 여백 설정 관련 기능

4.1 공급 용지와 편집 용지 설정

용지 설정과 관련하여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이른바 ‘공급 용지’와 ‘편집 용지’이다.⁷ ‘공급 용지’란 프린터에 공급되는 용지이며, ‘편집 용지’란 사용자가 목표로 하는 최종 출력물의 편집에 이용되는 용지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프린터에는 A4 용지를 공급하며, 일반적으로 같은 용지를 편집에도 이용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A4 용지에 인쇄를 하더라도 최종 출력물의 용지 크기는 B5 용지일 때도 있다. 따라서 제본을 할 때에는 A4 용지에 인쇄된 출력물을 B5 크기에 맞도록 재단하여야 한다.

공급 용지 크기는 보통 클래스 선택 사항으로 지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크기는 A4로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1 \documentclass[a4paper]{oblivoir}
```

위와 같이 지정하면 공급 용지와 편집 용지 모두 A4 용지를 사용하게 된다.⁸

이제 편집 용지를 지정해 보자. 편집 용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fapapersize` 패키지를 이용한다.

```
2 \usepackage[dbl4x6]{fapapersize}
```

위의 명령은 공급 용지로는 A4를, 편집 용지로는 사륙배판(`dbl4x6`)을 사용하는 예이다. 현재 `fapapersize` 패키지에서 지원하는 편집 용지 크기로는 사륙배판 이외에 국판(`mum`), 신국판(`newmum`)이 있다. 이들은 모두 A4 용지보다 크기가 작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재단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이 때 재단을 위한 안내선이 표시되면 편리할 것이다.⁹ 안내선을 표시할 때에는 클래스 선택 사항으로 `showtrims`를 추가로 지정한다.

5. “은글꼴 type 1”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몰라도 문제는 없다. 자세한 것은 [4]를 참조하라.

6. 초보 사용자들로부터 PDF 문서에서 한글 문자열을 추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쉽게 말하면 PDF 문서를 보거나 인쇄할 때에 이용하는 이른바 리더(대표적으로 Adobe Reader)가 없이도 PDF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으려면 문자열 추출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PDF 문서의 내용도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7. 이 용어들은 사용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한 상용 워드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빌어 온 것이다.

8. A4 이외에 `Oblivoir`에서 지정할 수 있는 표준 공급 용지 규격은 [3]을 참조하라.

9. 안내선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 상용 워드프로세서에서는 ‘편집 용지 표시’라 부른다. 이 안내선을 영어로는 ‘trim mark’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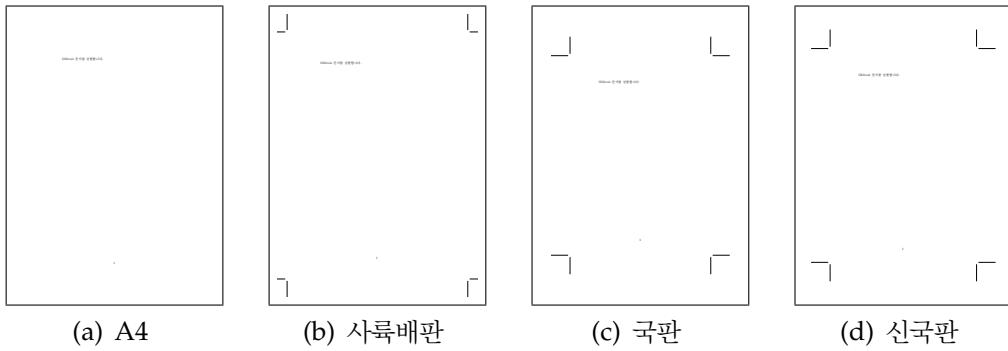


그림 2. A4 공급 용지에 대해 서로 다른 편집 용지를 적용한 예

```

1 \documentclass[a4paper,showtrims]{oblivoir}
2 \usepackage[mum]{fapapersize}
```

동일한 공급 용지에 대해 서로 다른 편집 용지를 적용한 예는 그림 2와 같다.

4.2 문서 여백 조정

Oblivoir가 제공하는 사용자 설정 기본값들 가운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백일 것이다. Oblivoir에서 여백 조정은 `fapapersize`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usefapapersize` 명령을 이용한다.

```

1 \documentclass[a4paper]{oblivoir}
2 \usepackage{fapapersize}
3 \usefapapersize{210mm,297mm,30mm,*,30mm,32mm}
```

위에서 보인 것과 같이 `\usefapapersize` 명령은 여섯 개의 인자를 받아들인다. 그들은 각각 편집 용지의 (가로) 폭, 편집 용지의 (세로) 길이,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위쪽 여백, 아래쪽 여백이다.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이 같을 때에는 오른쪽 여백, 즉 네 번째 인자로 *를 줄 수 있으며, 위쪽 여백과 아래쪽 여백이 같을 때에는 아래쪽 여백, 즉 여섯 번째 인자로 *를 줄 수 있다. 또한 클래스 선택 사항으로 공급 용지를 지정한 경우, 편집 용지의 폭과 길이를 공급 용지와 같은 경우 할 때에도 *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
3 \usefapapersize{*,*,30mm,*,30mm,*}
```

와 같이 하면, 공급 용지와 편집 용지는 모두 A4이며,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 위쪽 여백과 아래쪽 여백이 모두 30mm로 지정된다.

4.3 공급 용지의 사용자 지정

일반적인 문서 작성률 작성할 때에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겠지만, Oblivoir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공급 용지 크기 이외에 특수한 크기의 공급 용지를 사용자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클래스 선택 사항으로 `stock`을 주고 `fapapersize` 패키지가 제공하는 `\usefastocksize` 명령을 이용한다.

```

1  \documentclass[stock]{oblivoir}
2  \usepackage{fapapersize}
3  \usefastocksize{100mm,120mm}
4  \usefapapersize{*,*,30mm,*,30mm,*}

```

다음과 같이 편집 용지 크기를 지정하면 가로가 긴 용지(landscape)를 지정할 수 있다.

```
4  \usefapapersize{297mm,210mm,30mm,*,30mm,*}
```

5 글꼴 설정 관련 기능

5.1 본문 글꼴 크기 지정

Oblivoir로 작성된 본문 글꼴의 기본 크기는 10pt이다. 그 외에 9pt, 10.5pt, 11pt, 12pt, 14pt, 17pt를 본문 글꼴의 기본 크기로 지정할 수 있는데, 특히 10.5pt는 국내 출판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Oblivoir에서 고유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본문 글꼴의 기본 크기는 클래스 선택 사항으로 지정한다.

```
1  \documentclass[10.5pt]{oblivoir}
```

10.5pt 선택 사항을 사용할 때에 한글과 함께 영문자 글꼴도 함께 커지는데, 때로는 영문자가 너무 커 보인다. 그럴 때에는 romanfixed 선택 사항을 이용하여 영문자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면 된다.

```
1  \documentclass[10.5pt,romanfixed]{oblivoir}
```

5.2 강조와 기울임

Oblivoir에서는 \emph 등의 명령을 사용하여 특정 부분을 강조할 경우, 한글은 그래픽체로, 영문은 기울임체(이탈릭체)로 표시된다. 한글도 영문처럼 기울임체로 강조하려면

```
1  \documentclass[itemph]{oblivoir}
```

처럼 한다. 하지만 한글의 경우 강조를 나타내기 위해 기울임체를 이용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강조를 그래픽체(utgr)가 아닌 다른 글꼴, 예를 들어 은궁서체(utgs)로 나타내려면 \SetGremphFonts 명령을 사용한다.

```
\SetGremphFonts{utgs}{utgs}
```

첫 번째 인자는 한글, 두 번째 인자는 한자와 기호 문자의 강조 글꼴을 각각 지정한다. \SetGremphFonts 명령은 반드시 \begin{document} 이전에 쓰여야 한다.

그 외에 Oblivoir에서는 드러냄표에 의한 강조 표시를 위해 \dotemp (상첨 드러냄표 강조)와 \circlemph (고리상첨 드러냄표 강조) 명령을 쓸 수 있다.

5.3 본문 글꼴 종류 선택

라텍을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마도 다양한 글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일 것이다. 다양한 글꼴 사용에 관한 질문은 크게 다음의 두 유형으로 나뉜다.

- ① 하나의 문서 안에서 여러 종류의 글꼴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 ② 기본 글꼴 외에 다른 글꼴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두 질문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깊은 연관이 있지만, 답변의 편의를 위하여 구별한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라텍은 태생적으로 다양한 글꼴 사용을 전제하지 않는 학술 문서 등의 작성을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하나의 문서 안에서 너무 많은 글꼴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즉, 라텍에서는 흔히 부르는 명칭을 따르자면 명조(바탕), 고딕(돋움), 타자 글꼴만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Oblivoir` 문서의 기본 설정은 명조 글꼴에 은바탕(`utbt`), 고딕 글꼴에 은돋움(`utgt`), 그리고 타자 글꼴에 은타자(`uttz`) 글꼴을 사용하는 것이다.¹⁰ 그런데 명조 글꼴에 은신문(`utsh`)을, 고딕 글꼴에 은봄(`utbm`)을, 타자 글꼴에 은필기(`utpg`)를 사용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
\SelectHfonts{utsh,utbm,utpg}{utsh,utgt,utgt}
```

`\SelectHfonts` 명령의 첫 번째 인자는 명조, 고딕, 타자에 해당하는 한글 글꼴을, 두 번째 인자는 각각에 해당하는 한자 글꼴을 지정한다. 이 때 글꼴의 종류에 따라 한자가 없는 글꼴은 한자 글꼴을 다른 글꼴로 지정해야 한다. 위의 예에서 은봄(`utbm`)과 은필기(`utpg`)는 한자 글꼴이 없기 때문에 은돋움(`utgt`)을 대신 지정한 것이다. 또한 글꼴에 따라 굵은 글꼴이나 기울임꼴 등의 변형 글꼴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라텍의 원칙이 한 문서 안에 다양한 글꼴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문 중간에 다른 글꼴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특정 부분의 글꼴을 일시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SetAdhocFonts` 명령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은옛글(`utyt`)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
\newcommand\MYFNT{\ttfamily\SetAdhocFonts{utyt}{utyt}}
```

처럼 `\MYFNT` 명령을 정의한 후,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¹¹

```
{\MYFNT 은옛글을 잠깐 사용합니다.}
```

두 번째 질문은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안타까운 것은 라텍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public)된 한글 글꼴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현재 라텍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개 글꼴로는 기본 은글꼴 이외에 은글꼴 추가 글꼴, 백묵 글꼴, 그리고 문화부 글꼴이 있다. KTUG Collection 2007에서는 이러한 추가 글꼴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9].

10. `KaTeX`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글꼴에 대해서는 [4, 27쪽]을 보라. 기본 글꼴의 예문은 같은 문서의 130쪽에 있다.

11. 더 자세한 `\SetAdhocFonts` 명령의 사용법은 [4, 39–40쪽]을 참조하라.

물론 *koTEX*과 함께 제공되는 *ttf2kotexfont.p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트루타입 글꼴을 라텍에서 쓸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트루타입 글꼴은 자유로운 배포가 금지된 상용 글꼴이므로 글꼴의 입수와 설치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몫이다.¹² 일단 설치된 글꼴은 앞서 보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6 대규모 문서 작성 관련 기능

이 절에서는 장의 구분이 있는 대규모 문서의 작성과 주로 관련된 기능을 살펴 본다.

6.1 장의 구분과 장 제목 스타일 지정

Oblivoir 클래스의 기본 설정은 *article* 클래스를 흉내낸 것이기 때문에 장(chapter)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장, 나아가 편(part)의 구분이 있는 규모가 큰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chapter* 클래스 선택 사항을 지정해야 하며, 장 제목의 스타일을 지정할 때에는 *\oblivoirchapterstyle* 명령을 이용한다. 다음은 장 구분이 있는 문서의 시작 부분의 한 예이다.

```

1 \documentclass[chapter]{oblivoir}
2 \begin{document}
3 \oblivoirchapterstyle{default}
4 \chapter{장 제목}
```

\oblivoirchapterstyle 명령으로 지정하는 장 제목 스타일은 사용자가 작성해야 한다.¹³

6.2 양면 편집 선택 사항 지정

단행본 등의 규모가 큰 문서는 대개 양면 인쇄를 전제로 하여 작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Oblivoir*에 지정할 수 있는 클래스 선택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oneside*: 단면 인쇄용 문서를 작성한다.
- *twoside*: 양면 인쇄용 문서를 작성한다.
- *openright*: 장이 시작하는 면을 홀수쪽(펼침면의 오른쪽)으로 한다.
- *openleft*: 장이 시작하는 면을 짹수쪽(펼침면의 왼쪽)으로 한다.
- *openany*: 장을 짹수, 홀수쪽 어디서나 시작하도록 한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위에서 *oneside*와 *twoside*는 상호 배타적이어서 함께 지정할 수 없다. *openright*, *openleft*, *openany*도 마찬가지이다.

12. *ttf2kotexfont.pl*을 이용한 트루타입 글꼴의 설치에 대해서는 [4, 113쪽]을 보라.

13. 장 제목 스타일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3]을 보라. [1]에는 *Memoir*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장 제목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당연히 *Oblivoir*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의 예는 양면 인쇄용이며 장이 홀수쪽에서 시작하는 장 구분이 있는 문서의 시작 부분의 한 예이다.

```

1 \documentclass[chapter,twoside,openright]{oblivoir}
2 \begin{document}
3 \oblivoirchapterstyle{mychapterstyle}
4 \chapter{장 제목}
```

7 그밖의 기능과 유용한 팁

이 절에서는 앞서 설명한 주요 기능 이외에 유용할 때가 많은 *Oblivoir*의 기타 기능과 유용한 팁 몇 가지를 선별하여 소개한다.¹⁴

7.1 행간 조절

기본 행간은 다음과 같이 조절한다.

```
\SetHangulspace{1.5}{1.2}
```

`\SetHangulspace` 명령의 첫 번째 인자는 본문의 행간을, 두 번째 인자는 각주나 떠다니는 개체(표나 그림)에서 사용되는 행간을 지정한다. 이 두 인자의 기본값은 각각 1.333과 1.1이다. 이 명령은 `\begin{document}` 이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문서 중간에서 행간을 조절하려면 다음과 같이 `\ResetHangulspace` 명령을 사용한다.

```
\ResetHangulspace{1.3}{1.1}
```

7.2 기호 문자 입력

라텍에서 영문, 한글 및 한자 이외의 기호 문자를 사용하려면, 원하는 기호 문자의 식자를 지원하는 패키지, 예를 들어 `textcomp`와 같은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한글 글꼴에 포함된 기호 문자를 문자표나 입력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다.¹⁵

*Oblivoir*에서는 이들 기호 문자 가운데 많이 쓰이는 문장 부호인 가운뎃점(.)과 줄임표(…), 낫표('') 및 겹낫표(``), 그리고 인용표(<>) 및 거듭인용표(«»)를 그림 3과 같이 쓸 수 있다.

7.3 절 표제항 모양 변경

절 표제항의 모양을 “제 1 절”과 같은 형식으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kosection` 클래스 선택 사항을 지정한다.

```

1 \documentclass[kosection]{oblivoir}
```

14. 이 글에서 소개하지 않는 다른 기능과 팁은 [7]에서 볼 수 있다.

15. 윈도의 IME에서는 「 등의 자소를 입력한 뒤 한자 키를 눌러 그 자소에 할당된 기호 문자들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자소별로 할당된 기호 문자의 목록은 [4, 42쪽]을 보라.

```
가운뎃점\cntrdot{}가운뎃점 \\  
줄임표\cntrdots{}줄임표 \\  
\snm{낫표}와 \bnm{겹낫표} \\  
\cnm{인용표}와 \ccnm{거듭인용표} \\
```

가운뎃점 · 가운뎃점
줄임표…줄임표
「낫표」와 『겹낫표』
〈인용표〉와 《거듭인용표》

그림 3. 문장 부호 명령 사용 및 그 결과

Oblivoir에서는 위와 같은 모양뿐만 아니라 Memoir의 기능을 이용하여 매우 다양한 모양의 장절 표제항을 미세하게 조절하여 만들 수 있다.¹⁶

7.4 페이지 스타일 지정

Oblivoir 클래스의 기본 페이지 스타일은 article과 같이 plain이다. 그런데 Oblivoir에서는 Memoir 클래스 방식으로 정의된 페이지 스타일을 사용하거나 새 페이지 스타일을 만들어 쓸 수 있다.¹⁷ 예를 들어, Memhangul-ucs에서 정의된 hangul 페이지 스타일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한다.

```
1 \documentclass[twoside]{oblivoir}  
2 \pagestyle{hangul}  
3 \markboth{멋진 문서}{\rightmark}
```

Oblivoir의 기본 설정에는 chapter가 없기 때문에 twoside 선택 사항을 지정했을 때, hangul 페이지 스타일이 만들어 주는 머리글의 왼쪽에 표시되어야 할 내용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에는 위와 같이 \markboth 명령을 이용해 왼쪽에 표시될 내용(\leftmark)을 직접 지정하면 된다. \markboth 명령은 첫 번째 절이 시작하기 직전에 나오는 것이 좋다.

7.5 각주 모양 변경

한국어 문서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식인 1), 2)와 같은 모양의 각주를 사용하려면 footnote 클래스 선택 사항을 지정한다.

```
1 \documentclass[footnote]{oblivoir}
```

7.6 enumerate 환경의 항목 머리 지정

기존의 영문자 및 아라비아 숫자 이외에 ‘가’, ‘ㄱ’, ‘㉠’, ‘㉠㉠’, ‘(ㄱ)’, ‘(가)’, ‘①’, ‘(1)’, ‘(a)’, ‘@’, ‘i’, ‘I’ 등의 한글 단음절 및 전각 기호 문자를 enumerate 환경의 항목 머리로 지정할 수 있다.

```
\begin{enumerate}[@]  
 \item ...  
\end{enumerate}
```

16. 자세한 것은 [3]을 보라.

17. 새 페이지 스타일 작성에 대해서는 [3]을 참조하라.

7.7 미세 조정

Oblivoir 클래스에서는 `koTEX/utf`에 도입된 미세 조정 기능 가운데 수식, 영문자, 팔호 등과 한글 문자와의 사이에 미세한 간격을 추가하는 `finemath` 기능을 기본으로 지원한다.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nofinemath` 클래스 옵션을 지정해야 한다.

```
1 \documentclass[nofinemath]{oblivoir}
```

또한 `koTEX/utf`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 기능도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1 \documentclass[microtype]{oblivoir}
```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는 글자 사이와 글자의 폭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여백 공간과 단어 간격을 좀 더 자연하고 균일하게 보이도록 하는 기능으로 폭이 좁은 문서에서 그 효과가 특히 좋다.¹⁸

7.8 PDF 북마크 만들지 않기

Oblivoir에서는 북마크가 기본으로 생성된다. 이를 방지하려면

```
1 \documentclass[nobookmarks]{oblivoir}
```

처럼 하면 된다.

7.9 한글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문서 작성

한글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
1 \documentclass[nokorean]{oblivoir}
```

와 같이 `nokorean` 클래스 선택 사항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한글이 조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글 관련 명령들이 사용되면 오류가 발생하며, `hyperref` 패키지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북마크도 만들지 않는다.

7.10 절 표제 번호 붙이지 않기

라텍에서 절 표제 번호를 붙이지 않으려면 `\section*` 와 같이 * 가 붙은 절 구분 명령을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PDF 북마크가 생성되지 않는다.

Oblivoir에서는 PDF 북마크를 기본적으로 생성하면서 절 표제 번호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
\maxsecnumdepth{chapter}
```

라고 하고 `\section*` 대신 `\section`을 사용하면 된다.

18.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가 적용된 예를 [4, 55쪽]에서 볼 수 있다.

7.11 문서 제목의 수직 위치 조정

라텍에서 문서 제목은 위쪽 여백을 남기고도 제법 내려와서 시작한다. 이 공간이 아깝다면 다음과 같이 `\droptitle`이라는 길이 변수의 값을 조절하여 제목의 수직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변수의 기본값은 0이다.

```
\addtolength{\droptitle}{-8ex}
```

8 맷는말

이상에서 다양한 사용자 설정의 기본값을 미리 제공하며,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유용한 기능을 가진 범용 한글 문서 클래스 *Oblivoir*를 이용한 문서 작성 방법을 살펴 보았다.

글머리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Oblivoir*는 라텍 입문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Oblivoir*의 밑바탕이 된 *Memoir*, *Memhangul-ucs* 및 *koT_EX/utf*로의 확장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이 글에 제시된 참고 문헌, 그리고 [10]에 실려 있는 예제 문서들을 통해 라텍 사용의 지평을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Lars Madsen, *Various chapter styles for the memoir class*, 2006. <http://ftp.ktug.or.kr/tex-archive/info/MemoirChapStyles/MemoirChapStyles.pdf>
2. 김강수, 왜 *oblivoir*인가?, 2006. <http://faq.ktug.or.kr/faq/Karnes/Oblivoir?action=download&value=whyob.pdf>
3. 김강수 옮김, *The Memoir Class*, 제 II 편 실전 응용, 2006. <http://doc.ktug.or.kr/memhangul/memucs-manual.pdf>
4. 은광희·김도현·김강수, 한국어 텍 *koT_EX v0.1.0* 사용 설명서, 2007. <http://project.ktug.or.kr/ko.TeX/kotexguide.pdf>
5. 이주호, *Oblivoir* 클래스 소개, 2006. http://faq.ktug.or.kr/faq/Karnes/Oblivoir?action=download&value=about_oblivoir.pdf
6. KTUGFAQ: *Karnes/Oblivoir*. <http://faq.ktug.or.kr/faq/Karnes/Oblivoir>
7. KTUGFAQ: *Karnes/Oblivoir/FAQ*. <http://faq.ktug.or.kr/faq/Karnes/Oblivoir/FAQ>
8. KTUGFAQ: *Karnes/Oblivoir/Fonts*. <http://faq.ktug.or.kr/faq/Karnes/Oblivoir/Fonts>
9. KTUGFAQ: KC2007 Updates.
10. KTUGFAQ: *SampleDocument*. <http://faq.ktug.or.kr/faq/SampleDocument>